

세종과 이순신

-다른 자리, 같은 마음, 신비의 수 54-

이내원
<이순신 승모인>

한국의 역사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 받는 사람을 꼽으라면 너나없이 세종대왕이 아니면 이순신을 말해, 막상막하 아슬아슬한 머리다툼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우리의 양대 위인이라고 결론 짓는데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 두 분이 그와 같이 지극히 숭앙 받는 이유와 업적은 재론하는 것조차 좀 쑥스럽지만 이 두 분을 비교해 보면 지극히 다른 점과 신비하리만큼 일치하는 점을 함께 보게 된다.

이 두 분이 몸을 일으킨 입지와 이름은 극명한 대립각과 콘트라스트를 이루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세종은 그 부왕인 태종의 계획적이며 무자비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왕권 강화 노력으로 이룩한 무소불위의 탄탄한 왕위에 올라 거칠 것이 없는 치자(治者)의 위치에서 시작했고, 이순신은 영락한 사대부 집안에서 몸을 빼어 말단 무관으로 세간에 나아가 임금과 치자 계급의 온갖 박해와 음해를 이기며 솟아 올랐으니 실로 절묘한 대비가 아닐 수 없다.

이름의 콘텐츠를 보아도 이순신이 우리 역사상 최악의 국난인 임진 7년 전쟁을 맞아 하늘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귀결지은 무공(武功)으로 대변되는데 비해 세종의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말인 한글 창제를 비롯하여 천문, 지리, 농업, 역사, 인쇄, 편찬, 의학, 아악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조선의 평화 인프라를 구축한 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작한 자리와 업적의 코드가 전혀 다른데 비해, 이 두 분의 기막힌 일치점이 있으니 그것은 그들 이름의 근저인 백성을 첫째로 생각하는 마음가짐, 즉 애민 민본 민주 의식이 그것이다.

이순신은 임금이 앞서 백성을 먼저 생각했으며, 그러므로 정유재란 당시 ‘부산 앞바다로 나아가 대마도로부터 바다를 건너오는 적장 가등청정을 잡아오라’는

선조 임금의 출전 명령을 ‘이는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며 부산 앞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사랑하는 수천 병사를 의미 없는 죽음에 내 보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임금의 명령에 불복하고 투옥과 백의종군을 맞이했다.

한편 훈민정음 서문에 나타나는 세종의 한글 창제의 취지를 보면 ‘한문이 우리 말과 맞지 않아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많아도 제 뜻을 실어 전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 이를 딱하게 여겨...’로 되어 있어 일반 백성의 어려움을 첫째로 생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임금이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무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상식과는 달리 세종의 한글 창제와 반포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유는 집현전의 실세인 부제학 최만리와 신석조, 김문, 정창손 등 일곱 노장 학자들이 한글의 반포를 ‘상스러운 글’이라고 하면서 맹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며, 끝내 백성의 편에 서서 이 반대론자들을 투옥까지 시키는 파란을 겪으면서도 한글 보급 의지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이보다 더한 백성 사랑이 있겠는가.

그렇다, 세종과 이순신의 완전코-드는 백성, 곧 대중을 첫째로 생각하는 애민민본 사상인 것이다.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일까? 세종은 54세로 단명했고, 이순신은 54세로 전사했으며, 중국의 전설적 전략가 제갈량도 오장원에서 54세로 파란을 마감했으니, 54 그것은 하늘이 정해 놓은 재사의 수명인가? 아쉽기만 하다.